

광양 어린이 교육 ‘관심·열기 뜨거웠다’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광양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입증됐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기부금이 감소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0인+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발했는데, 지역사회의 기업,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127개소에서 4억65만원의 기탁금이 모아졌다.

이는 당초 최소 목표로 설정한 기부자 100인, 기탁액 1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것으로 어려운 경기침체속에서도 아동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기부액 1억원, 1인당 100만원 이상 참여 인원 100명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기부 릴레이 ‘100인+기부 릴레이 운동’을 벌였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에게 바톤을 넘기는 기부 릴레이 방식이었다.

목표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기업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양기업 (대표 황재우)은 5000만원, 혁신실업(대표 황민우) 3000만원, ㈜디와이이 (대표 이광웅) 3000만원을 비롯해, ㈜광양교통 (대표 이순삼) 1000만원,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1000만원, ㈜지티이노베이션 (대표 신광호) 1000만원, 경호건설 (대표 고재길) 1000만원, 한국LPG벌크협동조합 (이사장 정운화) 850만원, ㈜드림피아 (대표 이백구) 700만원, 만보중공업 (대표 남양준) 700만원을 기탁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이 이번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힘을 실었다.

신광호 지티이노베이션 대표는 “시가

아이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보태고 싶어 참여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웅 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은 “광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양에서 책임지고 키우자는 취지로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벌였다”며 “경기가 어려워 격정도 많이 했는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출범한 어린이보육재단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선생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 어린이안심정류장 설치 지원, 부모 교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 38개에 달하는 어린이 양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지난 7일 광양시청에서 마지막 기탁자들이 ‘100인+기부 릴레이’ 전달식을 갖고 있다.

‘100인+기부 릴레이’ 127개소 참여...4억65만원 기탁
참여자·기탁액 목표 초과...“지역사회 관심·지원 감사”

전남·경북 결혼이주여성, 안동서 우정·화합 다져

70여명 참여 영·호남 교류 행사

전문문화체험·소통 공감 확대

전남도와 전남도다문화지원거점센터는 6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경북도가 축센터와 함께 경북 안동에서 ‘결혼이주여성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북도의 영암·신안 방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의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휴식을 즐기며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전남도·경북도 가족센터 관계자와 결혼이주여성 70여명이 참여했으며, ‘공존을 위한 감수성 및 의사소통 증진’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와 전남도다문화지원거점센터는 경상북도, 경북도가 가족센터와 함께 경북 안동에서 ‘결혼이주여성 영·호남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와 참가자들은 한국 생활과 문화 차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우정과 협력의 뜻을 다졌다.

전남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를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병산서원과 회화마

을 방문해 전문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준 전남도 이민정책과장은 “이번 교류 행사가 영·호남 지역 간 화합의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곡성 기차마을시장서 ‘고객 만나기’

차량 무상점검·할인 판매...“지역민 사랑 보답”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가 올해도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작은 캠페인을 전개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곡성군 기차마을시장 주차장과 곡성공장 주차장에서 타이어 무상점검 및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이어프로 광주공항점과 곡성점이 참여해 행사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타이어 상태, 공기압 등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위치교환, 워셔액 보충 등 서비스를 펼쳤다.

금호타이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고객 만나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윤선민 곡성공장장은 “향토기업의 역



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는 ‘소방의 날’을 맞아,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층급 지하도상가 일원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도시공사, 화재예방 캠페인 펼쳐

안전문화 확산·재난 대응 역량 강화 앞장

광주도시공사는 ‘소방의 날’을 맞아,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층급 지하도상가 일원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방의 날’은 매년 11월 9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1991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날로, 재난 및 구급 신고 번호인 ‘119’를 상징한다.

이번 행사는 “손수건 사용으로 안전을 지켜요”를 슬로건으로 진행했으며 공사는 지하도상가를 찾은 시민들에게 화재대

피용 손수건을 배부하며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함께 안내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상가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승남 사장은 “소방의 날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은 최근 진흥원의 정기 사회공헌활동으로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일대 농가에서 ‘Farm 나누어드림’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Farm 나누어드림’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기부해 전남 지역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 도



움을 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인용 원장은 “이번 농촌 봉사활동은 진흥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신인수 (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희진 (논산 참아사대온약국) 군 박승호 (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 (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 (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라마 웨딩을 신관 지젤홀 1층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알림 ▲마리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리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 (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아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운세 (음력 9월 21일)

48년생 구박 당할 수 있으니 말을 삼가라
60년생 뜻밖의 금전 생기기나 귀인을 만난다
72년생 독단하지 말고 상의하라
84년생 충들을 피하며 겸손한 마음 유지하라
96년생 연인에게 정성을 다해야 한다

51년생 참아라 후회 없다
63년생 문서 들어오고 지인의 도움 받는다
75년생 사기당하거나 속을 수 있다
87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마라
99년생 물질은 빈곤구하루

54년생 작업 변경하지 말고 추진
66년생 동남쪽으로 가면 귀한 것 얻는다
78년생 억울한 말 듣더라도 대들지 마라
90년생 과욕 버리면 순탄하게 흘러갈 것

57년생 경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타날 것
69년생 신용이 재산이다
81년생 안팎으로 기쁜일이 생겨날 듯하다
93년생 침착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

49년생 말을 다 들어 본 후에 판단해도 된다
61년생 손윗사람이 나를 음해하려 한다
73년생 거처쳐 원망한들 무슨 소용인가
85년생 도난 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
97년생 외출 삼가하라

52년생 몸에 충격 받기 쉬운 날 운전 주의
64년생 계약이나 매매는 빨리 처리하라
76년생 참고 인내하면 금전이 배가 될 것
88년생 아이디어 과감히 밀고 나가자

55년생 조금 어려우나 신경쓰지 말고 진행
67년생 다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아라
79년생 제 3자 이야기로 배우자와 충돌
91년생 때를 만나 활동하니 성공하게 될 것

58년생 마음 움직이지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70년생 금전지출 신중하라
82년생 아랫사람을 믿지 마라
94년생 미팅 성과 없이 헛수고하기 쉽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일방적 행동으로 주변과 마찰 생긴다
62년생 지인에게 술자리와 희식 초대받는 날
74년생 자신의 거품을 걷고 내면을 보라
86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로 당황하는 날
98년생 친구와 불화 조심 타협하라



53년생 새로운 일 도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65년생 배우자와 사랑이 좋아진다
77년생 재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
89년생 충들이 예상되지만 의견에 따르자



56년생 지인이 도움을 준다
68년생 모험에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80년생 지인들과 무모한 일에 손대지 말라
92년생 뒷사람이 나를 음해하려 하고 있다



59년생 집에 홀로 있으니 고난과 갈등 있다
71년생 고비를 넘기면 좋은 결과가 있다
83년생 거래가 이뤄져도 손해만 크다
95년생 미련이 남아있으니 손질이 많다